

## 2015 제천시민교양대학강좌 (3월4일(수) 오후7시 제천시립도서관)

### 「예능문화로 본 민속의세계 - 기생/게이샤 탐구」

김영철 (한양대학교 일본언어문화학과 교수)

#### 1. 유녀의 이상 요시노(吉野)

교토 로쿠조 미스지마치(京都六条三筋町)에 유곽이 있던 시절, 하야시 요지베(林與次兵衛) 집의 2대 요시노(1606- 1643)를 지칭. 매년 10월 교토에서 행해지는 지다이마츠리(時代祭)에서 전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들의 행렬 속에 요시노가 들어있는 것만 보아도, 이 2대 요시노는 교토 즉 일본을 대표하는 유녀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후지모토 기잔(藤本箕山)의 『시키도 오오카가미(色道大鏡)』(延宝6年:1678, 『新版 色道大鏡』2006, 新版 色道大鏡刊行會, 八木書店)에 의하면, 본명은 도쿠시(徳子)로 무사의 딸로 태어나 7세에 포주 하야시 요지베에게 팔려와, 14세에 요시노란 이름으로 최상급 유녀인 다유(太夫)로 등장한다. 그녀는 타고난 미모와 교양으로 일세를 풍미한 당대 최고의 일급유녀로, 간에이(寛永) 8년(1631)에 거부 하이야 쇼에키(灰屋紹益, 1610-1691)에 의해 기적에서 벗어나 그의 아내가 된다. 12년의 부부생활 끝에 간에이(寛永) 20년(1643) 타계. 그녀는 소위 당시로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신분탈출과 상승에 성공한 대표적인 신데렐라인 셈이다.

이하라 사이카쿠(井原西鶴)의 우키요조시(浮世草子)인 『고쇼쿠이치다이오토코(好色一代男)』의 5권 1장 「後は様付けてよぶ」를 들 수가 있으며, 그 장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된다.

都をば花なき里になしにけり、吉野は死出の山にうつして、 とある人の詠めり。なき跡まで名を残せし太夫、前代未門の遊女なり。いづれをひとつあしきと申すべき所なし。情第一深し。(이하, 小學館 日本古典文學全集 西鶴集 인용)

어느 한 곳 탓할 곳이 없이 완벽한 그녀였지만, 그래도 무엇보다 정이 깊은 것(情第一深し)이 최고의 유녀라 할 만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어지는 요시노의 인간미울 엿보게 해주는 일화(발표시 설명)는 사실 당시 유곽에선 큰 사건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곽의 규율을 어긴 요시노

에 대한 처벌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揚屋よりとがめて、「これはあまりなる御仕方」と申せば、「けふはわけ知りの世之介様なれば何隠すべし。各の科には」と申すうちに夜更けて、「介さまの御越し」と申す。太夫只今の首尾を語れば、「それこそ女郎の本意なれ。我見捨てじ」と、その夜俄に揉立て、吉野を請出し、奥さまとなる事、そなはつて賤しからず。

이 위기는 유곽의 멋쟁이인(わけ知り) 주인공 요노스케(世之介)가, 유녀의 본분을 지킨 것(女郎の本意)이란 판단과 그의 막대한 부를 통해 뒷처리(請出し: 기적에서 빠주는 것)해 주는 것으로서 무마되는 것이다. (6권 1장 「喰ひさして袖の橘」의 유녀 미카사(三笠)의 처벌의 이야기를 참고) 이런 절대적인 인기와 미모를 가진 당대 최고의 유녀가 한낱 미천한 유객의 마음까지도 헤아려줄 만큼 「情第一深し」유녀는 전통적으로 보현(普賢)보살의 이미지와도 일맥상통한다.

現実に遊里の設備が整うことによって、豪華な衣装や伽羅の香り、といった「異香薫じ華降る」浄土の幻想を具体化する小道具が備わり、遊郭はこの世の他界としての地位を確立してゆく。そして遊女は、そこに示現する天女、菩薩となるのである。(佐伯順子『遊女の文化史』 中公新書853)

주인공 요노스케의 존재감이 단지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품 요시노를 보호해 주는 미의식(여기서는 스이(粹)를 의미하는 わけ知り: 스이에 관해서는 즐고 「粹の理想と『一代男』の構成」참고(『日語日文學研究』41輯 韓國日語日文學會 2002.5)의 실현자로서만이 의미를 갖는데, 그런 요노스케의 멋스런 유흥의 행위가 아니면, 사실 요시노 뿐만 아니라 모든 유녀들에게 요구되는 자비로운 유녀로서의 본령의 발휘조차도 실현하기 어려운 미덕이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스이(粹)라는 유곽편의적인 미의식의 발생이 반드시 미적 의식의 실현이라는 이상적인 목적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결과이면서, 이상적 유흥세계의 대명사격인 일급유녀에게조차도 그 스이라는 미의식은 편의적으로 이용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 2. 인기유녀 유기리(夕霧)

이하라 사이카쿠(井原西鶴)작 『好色一代男』6권 2장 「身は火にくばるとも」의 유기리(夕霧)(承応2年:1653-延宝6年:1678)

朔日より晦日までの勤め、屋内繁昌の神代このかに、又類なき御傾城の鏡、姿をみるまでもなし、髪を結ふまでもなし、地顔素足の尋常、はづれゆたかにほそく、なり恰好しとやかに、ししのつて眼ざしぬからず、物ごしよく、はだへ雪をあらそひ、床上手にして、名誉の好にて、命をとる所あつて、あかず酒飲みて、歌に声よく、琴の弾手、三味線は得もの、一座のこなし、文づらけ高く長文の書きて、物をもらはず、物を惜しまず、情ふかくて手くだの名人、「これは誰が事」と申せば、五人一度に「夕霧より外に、日本広しと申せども、この君」と、口を揃へて誉めける。

유녀로서의 제반 조건을 두루 갖추고 적당히 모든 면의 능력에서 뒤지지 않는 유녀가 누군가를 묻는 질문에, 모인 사람 모두가 한결같이 유기리를 지명하며(夕霧より外に、日本広しと申せども、この君) 칭찬하더라는 구체적인 일화의 서두로 시작되는 이야기는, 유기리가 매사에 합리적이고 사리에 밝은 처신으로 모든 이로부터 사랑을 받는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그녀의 가장 훌륭한 점은 진실한 마음씨(まことなるこころ)임을 인상지우는 묘사로 일관하며,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인공 요노스케와의 밀회를 성사시키기 위하여 택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결과적으로 세평과 마찬가지로 모든 면에서 균형 감각이 잡혀있는 빼어난 유녀였음을 요노스케가 확인했다는 내용이다.

유기리의 이상적인 유녀상은 “遊女が「万人のこころざしを受け入れる聖女」であることと、「金銭で買われる商品」であることは矛盾する「背理」(前田愛「廓の女」)ではなく、むしろ逆なのである”(사에키 준코, 전게서)라고 주장하는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다. 현실세계의 만인에게 베푸는 보현 보살의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유녀의 이상이 낳은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상은 요시노의 경우처럼 유곽의 편의적인 미의식에 근거한 멋쟁이의 유희방법에 의해 위기로부터 구제되거나, 자식으로 인해 현실세계에 발을 내딛으려하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유기리의 고뇌와 같듯처럼, 결코 현실적인 거리감각을 갖고 바라보거나 이해할 수 있는 이상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다수의 접객손님에 대하여 동시에 동일한 함량의 나사케(情)를 베풀려고 함

으로써 발생할 수밖에 없는 속임수와 불성실은, 극단적인 경우엔 손님을 제편의에 따라 농락하는 악질적인 유녀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 본질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유곽이란 세계에 비일비재한 현실이다. 유기리가 교토와 오사카 두 도시에서 변함없이 사랑받았던 이유는, 사이카쿠의 표현처럼 이러한 현실의 유곽을 이상적인 보현보살의 베품의 세계로 착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진실한 마음씨(まことなるこころ)의 소유자였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 3. 조선명기 황진이

16세기 조선 중기의 명기로 알려진 황진은 지금의 개성인 당시 송도의 기생 명월이란 이름으로 유명하다. 그녀에 대해서는 정사의 기록이 없어 정확한 생몰년은 알 수 없다. 다만 여러 종류의 설화나 야담의 문헌을 통해 많은 일화가 전해져 오고 있고, 시조집이나 한시선집을 통해서 그녀의 작품들이 전해져 올 뿐이다.(이능화의 『조선해어화사』 동문선 문예신서29 에 소개된 일화를 근거로 함)

우리가 그녀에 대해 주목하는 것은 기생의 신분으로 더할 나위 없는 풍류를 즐길 수 있었던 점과, 그 풍류를 함께 한 당대 최고의 인물들과의 일화가 보여주는 이상적인 유흥의 세계가 아닐까 한다. 대표적인 문인 유학자 왕족 승려와 절창(李生, 徐敬德, 碧溪水, 知足禪師, 李士宗)으로 대표되는 일화의 면면들은, 그녀가 가히 당대의 최고 명기로서 손색이 없었음을 짐작케 한다. 천하의 절색으로 뛰어난 가무의 재능과 작시능력, 그리고 풍류의식을 현실로 실행한 다양한 일화(李德潤, 『大東野乘』 71卷)는, 그녀가 자유로운 사교의 풍류를 아는 멋쟁이였음을 확인시켜 준다. 기생으로서의 자존심과 여유를 여지없이 보여준 벽계수를 함락시킨 시조는 그녀의 기생으로서 타고난 자질의 여유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굳이 언급할 필요조차도 없다.

靑山裡碧溪水	무른 산속을 흐르는 맑은 물이여
莫誇易移去	쉬이 흘러감을 자랑하지 마시게
一到滄海不復還	한번 푸른 바다로 나가면 다신 되돌리지 못하노니
明月滿空山	밝은 달빛이 이 빈산에 가득할 제
暫休且去若何	잠시 쉬었다 가는 게 어떠하리오

왕족의 위세에도 주눅 들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상대를 움직일 수 있는 여유로운 풍류의식은, 기생이란 위태로운 신분으로서는 쉽사리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생은 관아에 소속된 천민 중에서 외모가 출중한 소녀를 선발하여 가무 등의 교육을 통해 키워진다. 결코 신분상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이며, 신분의 벽을 뛰어넘는 출세는 꿈꿀 수 없는 일이었다. 황진이와 풍류에 얽힌 다양한 일화도 신분상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엄연했기에, 기생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며 신분적 우위에 있는 양반들과 대등하게 풍류를 즐길 수 있는 여유로운 의식과 자세가 빛난다고 할 수 있다.

汎彼中流小柏舟 저 물결 한 가운데 뜬 조그만 잣나무 배  
幾年閑盛碧波頭 몇 해나 저 푸른 물결 위에 한가로이 매었나  
後人若問誰先渡 누가 먼저 건넜는지 뒤 사람들이 묻는다면  
文武兼全萬戶侯 문무를 모두 갖춘 만호의 후작이라 하리라

기생이란 입장을 은근히 연상하게 만들기도 하는 내용의 위 시조「小柏舟」에는, 이미 잦은 연회와 피곤한 유흥에 지친 기생의 관점이라기보다, 다분히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인생의 먼 길을 걸어가길 마다않는 자가 감싸 안은 자신의 모습을 관조하는 여유가 있다.

걸인과 같은 행색으로 서로 숙식을 해결해 주며 떠도는 李生과의 金剛山 여행의 일화를 전하는 문헌(許均, 『惺翁識小錄』)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영락한 미인의 초라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빛나는 절대적인 미모의 묘사(柳夢寅, 『於于野談』)가 가능했던 것은, 결국 그녀의 타고난 풍류인의 자유로운 삶의 의지가 신분의 굴레를 벗어나 현실에 실현될 수 있음으로 해서 빛났던, 그녀의 아름다운 삶의 빛에 기인한 것이다.

조선의 풍류는 사대부의 미의식에서 절대적 의미를 찾는다. 문재를 통해서 출세할 수 있는 조선사회에서는, 현세 실용의 유교적 가치실현과 학문적 이상의 실현이란 모순이 항상 대립하게 된다. 따라서 풍류의 실현 역시 현실적인 유교의 가치와 부딪히고 도태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풍류의 실현이란 결국 현실적인 가치관에 구애되지 않는 사고의 소유자가 아니면 실현하기 어려운 덕목이다. 아니면 현실의 궤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입장에 놓였을 때 비로소 실현가능해지는 멋이기도 하다. 황진이 관련 설화들이 보여주는 그녀의 파격적인 멋의 실현 또한 신분의 굴레를 초월함으로써 멋스런 풍류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 4. 사모의 정과 매창(梅窓)

이화우 흠날릴 제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추풍낙엽에 저도 날 생각는가  
천리에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노라

촌은(村隱) 유희경(劉希慶)을 그리며 읊은 매창(1573-1610) 유일의 한글 시조 「梨花雨 흠날릴 제」는, 기생의 시조답지 않은 애절함과 그리움으로 가득한 시정으로 인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기생의 사랑이기에 더욱 가슴 아픈 시조일 수 있으며, 풍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이기에 더욱 기생 매창의 신분이 안타까워지는 의미로 전달되어 온다.

황진이와 달리 매창은 외모가 뛰어난 기생은 아니었음이 허균의 『漕官紀行』의 다음 문장(壬子 到扶安雨甚留 高弘達來見 倡桂生李玉汝情人也 挾瑟吟詩 貌棒雖不揚有才情可與語 終日觴詠相倡和 夕納其姪於寢為遠嫌也(이능화, 전개서))을 통해 알 수 있다.

계생(매창)은 부안의 관리 이옥의 첩으로 알려져 있는 전라도 부안 기생이었고, 외모는 그다지 출중하지 않았지만 시가를 짓고 거문고를 타는 솜씨가 뛰어나, 하루 밤새도록 시를 짓고 대화를 나누었다고 말하는 허균은, 이후 십년 가까이 매창과 문우로서의 교류를 하게 되며, 훗날 매창의 죽음에 접하여 그 안타까움을 시로 남긴다.

이 일화로도 알 수 있듯이 매창은 기생이면서도 기생으로서의 일화로 후대에 기억되기보다는 문인다운 모습으로 기억되는 경향이 있다. 본명이 이향금(香今)인 매창은 부안의 하급관리의 기생첩이 낳은 딸로, 어린 시절은 양반의 딸로서 상당한 교육을 받은 덕택에 훗날 기생이 되어서도, 타고난 문재의 덕으로 많은 양반들과 지적인 교류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당대의 대표적인 시인 유희경과의 만남과 죽을 때까지 간직한 사랑의 그리움도, 그녀의 뛰어난 작시능력과 탄금의 재주로 인해 더욱 빛났다고 볼 수 있다.

## 5. 이상과 허실

일본의 에도시대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유녀와 기생의 일화를 양국의 문예를 통해 살펴보았다. 유녀와 기생을 비교해야 할 필요불가결한 조건이나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다. 가능한 비교의 기준이라면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유녀와 기생이 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신분의 굴레가 그녀들의 삶을 규제하고 있었다는 시대적 상황의 유사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당시인들 혹은 후대의 사람들에게조차도, 봉건시대의 신분제도가 만들어 낸 희생자라는 인식보다는, 당시의 문화를 빛내거나 시대를 대표하는 이상적인 인물

등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것은 시대를 지배하는 제도 자체가 곧 문화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면, 당시의 양국은 공식적으로 유흥의 꽃을 양성해 사회적 필요에 대응했다는 유사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그 유흥의 꽃들은 현실 속의 이상을 실현하는 인물로 시대를 초월하여 각인되어 온 것이다.

황진이와 이매창의 일화가 신분차이의 문제로 인하여 흥미롭게 전달되기는 하지만, 신분의 문제보다는 한 시대를 구가하는 풍류와 멋을 어떻게 체현했는가 하는 점이 주된 관심거리였다.

유녀의 이상으로 묘사되는 요시노와 유기리의 경우도, 그들의 신분의 문제보다는 당시의 대중들이 꿈꾸는 이상향의 꽃으로서 바라보는 유녀로 묘사되어 온 것이다. 즉 그들이 꿈꾸는 유녀상이 현실적으로는 존재하기 어려운 허상임을 인식하면서도, 그 허상을 실상으로 인식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존재, 즉 이상적인 유녀상으로 기대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양국의 유흥세계에서 볼 수 있었던 화려한 유흥의 꽃이 갖는 시대와 문화적 의미는 유사하다.

에도시대 대도시 유녀들은 유곽이라는 공창을 무대로 유흥을 제공하는 것이 본업이다. 그리고 조선의 기생은 연회의 가무와 접객이 본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생존을 위한 매춘이 따라 붙는다. 유흥의 꽃이 된다는 것은, 유녀는 돈으로 거래되는 상품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기생은 노비로서 강요되는 접객의 노동이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양국의 명기들은 이러한 현실의 굴레와는 달리 화려한 인생을 살아간 것처럼 인식되기 십상이다. 그 인식의 근거에는 현실적 기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의 대중들에게, 비현실적인 이상의 세계처럼 비치는 유흥의 세계에서, 치열한 삶의 영위를 멋스런 미의식으로 승화할 수 있었던 명기들의 풍류와 미의식으로 인해, 그녀들을 보현보살의 현신이란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고 사랑했기 때문일 것이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만들어진 유흥의 세계는 현실을 지탱하기 위한 순기능적인 수단이면서도, 현실적 기준을 망각하게 하고 유흥에 세계에 함몰되게 하는 속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많은 폐해를 잉태해 내는 역기능 또한 있다. 그것은 현실 속의 이상향이 가진 또 다른 얼굴이다. 거기엔 절대적인 미의 근원인 유흥의 꽃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 조선시대 기생과 일제강점기 기생의 차이점

# 일본 에도시대 유녀와 게이샤, 메이지유신 이후의 게이샤